

목탁이 만들어진 유래를 들려주는 '고기 등에 자란 나무'의 한 장면.

진관사 코끼리유치원 눈높이 불서 6권 펴내

“유치원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싶어 직접 어린이불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6~7세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어려운 불교용어를 가급적 쓰지 않았고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도 최대한 단순화했습니다.”

높은 제작 단가와 예측할 수 없는 시장 환경 탓에 냉대를 받아온 어린이 불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린이불서 제작에 한 불교계 유치원이 발 벗고 나섰다. 바로 서울 진관사 부설 코끼리유치원(원장 임미숙)이 펴낸 '부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시리즈다.

이번에 선보인 책은 <목마를 타고 간 동자승> <옛날 꽃병과 장사꾼> <기녀 임버버리> <고기 등에 자란 나무> <늑사의 소년> <소로 변한 스님> 등 6권. 매주 월요일 각성 스님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엮었다. 코끼리유치원 교사인 최은숙(26)씨가 그림을 그렸고, 진관사 어린이법회 출신으로 올해 동국대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한 이주아(20)씨가 글을 썼다.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림책처럼 화려하거나 고급스럽진 않지만, 아이들의 눈높이를 살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친근감 있는 그림이 돋보인다. 이야기 구성을 단순화해 집중력을 높인 것도 장점이다.

각성 스님이 어린이불서를 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북이>와 <아빠 원숭이가 놓은 다리> 등 2권을 펴냈다. 하지만 이 책들은 모두 비매출. 을 컬러로 제작되는 어린이책의 특성상 제작비가 적지 않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간된 책들도 각각 500권씩만 인쇄해 불교계 유치원과 어린이집 40여 곳에 무상으로 배포했다. 각성 스님은 “이번에 펴낸 책들 외에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 둔 그림과 원고들이 10여 개 정도 있는데, 언젠가 계기가 되면 책으로 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31)978-0997 여수령 기자



시로 설한 세상만사

덕진·현담·헤인 스님 시집 잇따라 출간

맑은 마음 고운 세상 덕진 스님 시집 | 부다가야 | 6천원
사랑이 오고 있다 현담 스님 시집 | 바보새 | 7천원
살아가라 살아가라 헤인 스님 시집 | 고려의학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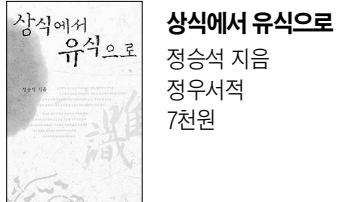


한 편의 시(詩)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주변을 되돌아보고 무딘 감성을 되살리는 촉매제가 된다. 때 이른 더위에 마음이 쉽게 지치기 쉬운 이때, 시심(詩心)에 불심(佛心)이 담겨 있는 스님 시인의 시집 세 권이 잇따라 나왔다. 덕진 스님의 <맑은 마음 고운 세상>, 현담 스님의 <사랑이 오고 있다>, 헤인 스님의 <살아가라 살아가라>를 통해 마음에 한 줄기 시심을 새겨보자. 첫 시집 <연꽃처럼 햇살처럼>을 출간한지 7년 만에 두 번째 시집 <맑은 마음 고운 세상>을 선보인 덕진 스님(울산 정토사 주지)은 시보다 먼저 스님의 이력에 눈길을 간다. 스님은 대한 불교여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과 선재연구모임 회장, 봉사단체 관계하는 사립들 공동대표 등을 맡아 포교활동에 앞장섰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1989년)과 포교대상 공로상(2001년)을 수상했다. 현재도 울산지방경찰청 경승실장을 맡아 포교 현장에서 그 열력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스님의 시에는 “내 자신이

먼저 봉사한다는 원력을 세우면/ 할 일도 보람도 사계절과 함께 한다”처럼 평소 수행이나 포교활동 중에 느꼈던 소회나 “동자승 하나/ 길을 가다가/ 구름을 본다”같이 인도·일본·태국 등을 성지순례하며 느꼈던 감성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집에는 성지순례 길에 찍은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현담 스님의 시에 배인 생의 우수와 절제감 있게 배인 서정의 그늘은 시공부를 시작하는 문학청년들에게 하나의 전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곽재구 시인, 순천대 교수) 그동안 빼어난 서정시를 주로 선보였던 현담 스님(김포 미타사 주지)은 세 번째 시집 <사랑이 오고 있다>에서 ‘시를 통한 만행’을 시도한다. “하마탄/ 메마른 내 몸 속에는 아직 무수히 많은 길들이/ 흔들린다/ 지친 낙타의 큰 눈 속에 잠긴 신기루/ 푸르른 호수 가운데/ 먼 길 들쭉처럼 무수히 날린다” (‘하마탄’ 卍) 스님의 발길은 전쟁의 상처가 남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기도 하고 혹은 파키스탄 힌두쿠시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향하기도 한다. 상처의 현장을 운문으로 느끼며,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을 가다듬고 상처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시로 읊었다. 전기철 시인(송의여대 교수)이 “고뇌와 아름다움이 공존해 있는, 만행의 발자국에서 피어난 한 떨기 우담바라”라고 평했을 정도로 스님의 시에는 만행의 향기가 가득하다. 25년간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펼쳐 온 헤인 스님(서울 불심사 주지)은 “북한산 기슭에서 지내며 보고 듣고 느낀 것과, 쉬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정진’ 속에서 눈떠 시향(詩香)을 담은 것이 바로 이번 시집 <살아가라 살아가라>”라고 말한다. 1부 ‘그리운 얼굴들’에는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모의 정과 조카들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2부 ‘절따라 마음따라’는 계절 따라 웃을 갈아입는 북한산의 정취를 읊조렸다. 3부 ‘배우며 행하며’와 ‘님을 향한 외길’에는 불교에 입문하고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과 그 속에서 만난 가르침을 노래한다. 이 수행의 과정에서 견져 올린 시를 통해 스님은 독자들에게 당부한다. “백년 살 좌각으로 지내다가/ 너와 나, 하나인 우리/ ‘마음’ 울림을 깨달아/ 들춰림 바람처럼/ 살아가라, 살아가라!”고.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상식적 언어로 유식의 세계로



상식에서 유식으로
정승석 지음
정우서적
7천원

실제까지도 포함하는 것일까? 유식학(唯識學)은 ‘모든 것이 식(識)일 뿐’이라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모든 것이 공(空)’이라는 관념을 입증하는 학문의 한 방식이다. 그러나 ‘마음’을 다루는 유식학의 경우 그 깊고 넓은 사상의 폭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건넌 수 없는 강(江)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정승석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이러한 유식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다리 놓기에 나섰다. <상식에서 유식으로>는 ‘상식적인 언어로 유식의 세계를 이해 보자’고 권하는 책이다.

“우리의 모든 지식이 그렇듯이, 나는 유식도 상식(常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믿는다. 마음에 대한 상식을 한 차원 끌어 올리면 그 상식은 유식이 된다.” 정 교수는 여기서의 관건은 바로 ‘언어’라고 말한다. 상식에서 유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상식적인 언어로 유식학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유식학의 언어를 상식적인 언어로 전환할 뜻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그동안 유식학에 대해 정면으로 접근하는 과정은 지식의 정돈이나 습득에 그치지 않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자제를 되새기는 수행의 일환이 됐다”며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실효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번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계선(箕城峽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행(苦行)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선서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법보 사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송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새로나온 책

- <동양고전사상>**(연정열 지음, 한성대학교출판부, 2만원) =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이들 대부분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애송하기보다 경전자체를 외우고 독송함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경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뜻으로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상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정열 교수(한성대 법학과)가 동양고전의 정수(精髓)를 간추린 <동양고전사상>을 펴냈다. '고전'이라고 하면 어려운 한자와 심오한 사상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가능한 우리말로 고전의 가르침과 핵심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사서삼경(四書三經)같은 유교사상서를 비롯해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등 불경의 성립 과정과 핵심사상을 풀이했다.
- <세우민의 스승들>**(우 포살라 사야도·우 페차니아 사야도 지음, 묘원 옮김, 행복한 숲, 1만원) = 미얀마 세우민 선원의 우 페차니아 사야도가 스승인 우 포살라 사야도의 법어와 법문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수행자들과 주고 받은 문답, 수행 중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 위빠사나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기도발>**(일광 스님 지음, 현대북스, 9천원) = 일광 스님(부산 신광사 주지)이 사람 홈페이지(www.kidobal.com)에 연재했던 신행일기를 책으로 묶었다. 흔히 기복신앙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는 '기도발'을 책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는, 동승으로 출가해 30여년간 부처님께 귀의해 살아오며 느낀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과 불보살님의 가피가 담긴 말이기 때문이라고 스님은 설명한다.
- <삶의 길 힘구름의 길>**(오소 라즈니쉬 지음, 류시화 옮김, 청아출판사, 1만3천원) = 오소 라즈니쉬의 <장자> 강론, 20여년 전 류시화씨가 국내에 처음 소개했던 책을 다시 번역해 내놓았다. 라즈니쉬는 <장자>를 통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라”고 말한다.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역경의 체증을 통해 깨닫게 해주려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각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운명비결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히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해람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속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부동산(집·땅·가게·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교제·결혼·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그림 당사주 대전 |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김백만 편저/40,000원 | 4x6배판/이선발, 전효일 공저/25,000원 | 신국판/양정민/김성진 지음/30,000원 | 신국판/양정민/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21세기 새개념의 양학 -완결편-

- 노한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물싹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직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 격국(용, 희신=추구하는 삶)과 심상체질(원초적인 본능=끌리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만족도)와 격국의 크기(성, 하격까지) 나온다.

왕초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노한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08페이지 / 정가 2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최고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페이지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심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술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